

심훈의 시조관과 시조의 변모 과정 연구

허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연구생, 현대문학 전공
blue0652@korea.ac.kr

- I. 머리말
 - II. 심훈 시조의 전체적 현황 분석
 - III. 심훈의 시조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1932), 「필경사잡기」(1935)를
중심으로
 - IV. 심훈 시조의 변모 과정 및 주제 의식
 - V. 맺음말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
되었음.

I. 머리말

심훈은 시, 시조, 소설, 영화소설, 시나리오, 영화평론, 문학평론 등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 연구 중 심훈의 시조 작품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용순은 「심훈 시조 고(考)」¹에서 심훈의 시조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신용순은 심훈의 시조를 초기 시조(1920-1929)와 후기 시조(1930-1934)로 나누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심훈이 전문적으로 시조를 창작했다고 평가한다. 신용순은 심훈이 이병기, 김억 등과 마찬가지로 시조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선행 연구자 가운데 최초로 주목했다. 김준은 「심훈 시조 연구」²에서 심훈이 시조 율기에 능했던 어머니 해평 윤씨와 집안의 영향으로 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심훈이 남긴 시조의 전체적인 현황과 「근음삼수」의 창작일자³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담고 있어 심훈 시조 연구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하상일은 「심훈의 「항주유기」와 시조 창작의 전략」에서 심훈이 1930년대에 시조를 창작한 이유로 “식민지 검열 체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연과 고향을 제재로 화자의 모순된 심경을 내면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시조였기 때문”⁴이라고 주장한다. 즉 심훈이 그의 소설에서 일본의 검열을 피하기

1 신용순, 「심훈 시조 고(考)」,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집(2011).

2 김준, 「심훈 시조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9집(2017).

3 「근음삼수」는 1934년 11월 2일 《조선중앙일보》에 발표된 연시조로 『심훈시가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김종욱·박정희의 『심훈 전집』에서는 이 시조의 창작일을 '12월 11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준이 그의 논문에서 미디어가온이 제공한 고신문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근음삼수」의 창작일은 '10월 21일'로도 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4 하상일, 「심훈의 「항주유기」와 시조 창작의 전략」, 『비평문학』 제61호(2016), 215쪽.

위해, ‘국가’를 ‘고향’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서사 전략을 구사한 것처럼, 시에서는 국가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은폐하기 위해 ‘시조’라는 형식을 채택해 자연과 고향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상일은 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 심훈이 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상일은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⁵에서 「항주유기」 시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훈이 중국 체류 시절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을 확립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심훈과 항주」에서는 “심훈의 시조 창작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서정에 바탕을 둔 자연친화적 세계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생활에서 경험한 절망적 현실인식과 1930년대 이후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적극 시도된 것”⁶이라고 평가한다. 한기형은 「습작기(1919-1920)의 심훈」⁷에서 심훈의 일기에 포함된 시조 작품을 발굴해 소개했고, 「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⁸에서는 「항주유기」에 실린 시조 중 「삼담인월」과 「평호추월」을 분석하며, 심훈에게 ‘항주’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탐구했다. 정은경은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⁹에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심훈 연구의 성과를 전기 및 서지, 시 연구 및 중국체험, 영화 및 다매체, 여성상 및 서사양식, 기독교 및 사상원류, 작중인물과 실제 모델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검토하며, “심훈 시조의 미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¹⁰와 전체 작품 수에 대한 확정을 심훈 시 연구의

-
- 5 하상일,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제51집(2015).
 6 하상일, 「심훈과 항주」, 『현대문학의 연구』 제65권(2018), 88쪽.
 7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제22권(2003).
 8 한기형, 「‘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 중국에서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제35권(2007).
 9 정은경,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7집(2018).

과제로 제시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본고는 선행 연구들의 타당한 결론들을 수용하는 한편, 선행 연구와 변별점을 마련하기 위해 심훈의 시조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심훈의 시조 세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II장에서는 심훈 시조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것이고, III장에서는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점과 입장을 검토할 것이며, IV장에서는 심훈이 남긴 시조 작품의 변모 과정과 주제 의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심훈의 시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동안의 선행 연구가 심훈의 시조에 비교적 덜 관심을 할애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심훈의 시조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훈은 습작 시절 쓴 1920년 1월 5일자와 3월 29일자의 일기에서 시조 작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1930년대에는 『삼천리』, 『신여성』, 『중앙』, 『조선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시조를 발표했다.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심훈은 일기에 시조를 적어두고 지인에게 시조를 써주었을 만큼 시조를 비교적 익숙하고 친숙한 장르로 여기고 있었다. 둘째, 심훈은 1932년 1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의 2장에 ‘시조(時調)는’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시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두었다. 즉 심훈은 시조에 대해 나름의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입장과 관점은 심훈의 시조 창작에도 반영되었다.

10 정은경(2018), 위의 논문, 227쪽.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훈이 남긴 시조 작품 중에는 「근음삼수」, 「원수의 봄」과 같이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보인 작품이 있으며, 이러한 작품을 분석해봄으로써 심훈의 농촌소설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훈의 시조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김종욱·박정희가 2016년에 엮은 글누림출판사의 『심훈 전집』¹¹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2013년 맥출판사에서 펴낸 『그날이 오면: 심훈 시가집 친필 영인본』¹²과 1966년 탐구당에서 발간한 『심훈문학전집』도 함께 검토했다. 글누림출판사의 전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글누림출판사의 『심훈 전집』이 가장 최근에 나온 전집으로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누림출판사의 『심훈 전집』은 1931년 『삼천리』에 실린 시조와 1932년 심훈이 생전에 엮은 『심훈 시가집』의 ‘항주유기’ 편에 실린 시조를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심훈 시조의 개작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맥출판사의 『그 날이 오면: 심훈 시가집 친필 영인본』은 심훈의 3남인 심재호가 자료를 기증하여 출간한 책으로, 심훈의 친필 원고 위에 조선총독부가 검열하여 삭제하도록 한 내용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심훈유품보존회가 기획하여 출간한 책으로, 비매품이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서 구할 수 없고,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다.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은 심훈 시조의 전체적인 출간 현황과 글누림출판사의 전집에 누락된 「행화춘」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11 심훈, 『심훈 전집』(글누림, 2016).

12 심훈, 『그날이 오면: 심훈 시가집 친필 영인본』(맥, 2013).

II. 심훈 시조의 전체적 현황 분석

심훈의 시조는 총 27편¹³으로 크게 매체를 통해 발표된 시조와 미발표 시조로 나뉜다. 발표 지면과 매체를 기준으로 심훈의 시조를 분류해보면, ①1920년의 일기에 포함된 시조: 「천국이 밝다 한들」, 「천만리라 먼 줄 알고」 등 2편 ②『심훈 시가집』의 「항주유기」에 실린 시조: 「평호추월」, 「삼담인월」, 「채련곡」, 「소제춘효」, 「남병만종」, 「누외루」, 「방학정」, 「행화촌」, 「악왕분」, 「고려사」, 「항성의 밤」, 「전당강반에서」, 「목동」, 「칠현금」 등 14편 ③『신여성』에 실린 시조: 「명사십리」, 「해당화」, 「송도원」, 「총석정」 등 4편 ④『중앙』에 실린 시조: 「농촌의 봄」(「아침」, 「창을 여니」, 「마당에서」, 「나물 캐는 처녀」, 「달밤」, 「벗에게」 등으로 구성된 연시조) 등 1편 ⑤『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시조: 「근음삼수」(「아침」, 「낮」, 「밤」 등으로 구성된 연시조) 등 1편 ⑥농촌을 다룬 미발표 시조: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 등 5편이다.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은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과 글누림출판사의 『심훈 전집』에는 「농촌

13 심훈의 시조 중에는 연작으로 쓰인 농촌 시조들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개별적인 작품으로 볼 경우 작품의 편수는 더 늘어난다. ①1920년의 일기에 적어놓은 시조: 「천국이 밝다 한들」, 「천만리라 먼 줄 알고」 등 2편 ②『심훈 시가집』의 「항주유기」에 실린 시조: 「평호추월」, 「삼담인월」, 「채련곡」, 「소제춘효」, 「남병만종」, 「누외루」, 「방학정」, 「행화촌」, 「악왕분」, 「고려사」, 「항성의 밤」, 「전당강반에서」, 「목동」, 「칠현금」 등 14편 ③『신여성』에 실린 시조: 「명사십리」, 「해당화」, 「송도원」, 「총석정」 등 4편 ④『중앙』에 실린 시조: 「농촌의 봄」(「아침」, 「창을 여니」, 「마당에서」, 「나물 캐는 처녀」, 「달밤」, 「벗에게」로 구성된 연시조)에 포함된 6수 ⑤『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시조: 「근음삼수」(「아침」, 「낮」, 「밤」 등으로 구성된 연시조)에 포함된 3수 ⑥농촌을 다룬 미발표 시조: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 등 5수로 전체 시조의 작품 수는 34편이다. 다만 여기에서 1920년 1월 5일자 일기에 수록된 「천국이 밝다 한들」은 시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1-심훈 시조의 전체 현황

번호	제목	최초 발표 지면	심훈시가집 (1932) ¹⁴	탐구당 전집 (1966)	글누리 전집 (2016)	기타
1	천국이 바다 한들	『사상계』, 1963. 12.	미수록	수록	수록	제목은 연구자가 시조의 첫 구를 따서 임의로 붙인 것 임. 심훈의 1920년 1월 5 일자 일기에 수록. 이 작품 을 시조로 볼 수 있을지 논 의가 필요함.
2	천만리라 먼 줄 알고	『사상계』, 1963. 12.	미수록	수록	수록	제목은 연구자가 시조의 첫 구를 따서 임의로 붙인 것 임. 심훈의 1920년 3월 29일자 일기에 수록. 두 수 로 구성됨.
3	평호추월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삼천리』 발표 당시 제목 은 「서호월야」. 연시조
4	삼담인월	-	수록	수록	수록	
5	채련곡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연시조
6	소제춘효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삼천리』 발표 당시 제목 은 「백제춘효」.
7	남병만종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8	누외루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9	방학정	-	수록	수록	수록	
10	행화촌	-	수록	수록	미수록	
11	악왕분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12	고려사	-	수록	수록	수록	
13	항성의 밤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14	전당강반에서	『삼천리』, 1931. 6.	수록	수록	수록	『삼천리』 발표 당시 제목은 「전당의 황혼」.
15	목동	『삼천리』, 1931. 6.	수록	미수록	수록	
16	칠현금	『삼천리』, 1931. 6.	수록	미수록	수록	
17	명사십리	『신여성』, 1933. 8.	수록	수록	수록	연시조
18	해당화	『신여성』, 1933. 8.	수록	수록	수록	연시조
19	송도원	『신여성』, 1933. 8.	수록	수록	수록	연시조
20	총석정	『신여성』, 1933. 8.	수록	수록	수록	연시조
21	농촌의 봄	『중앙』, 1933. 4.	미수록	수록	수록	「아침」, 「창을 여니」, 「마당에서」, 「나물 캐는 처녀」, 「달밤」, 「벗에게」 등 6편의 연시조.
22	근음삼수	《조선중앙일보》, 1934. 11. 2.	미수록	수록	수록	「아침」, 「낮」, 「밤」 등 세편의 연시조.
23	보리밭	-	미수록	수록	수록	탐구당과 글누리 전집에서는 「농촌의 봄」에 실려 있음.
24	소	-	미수록	수록	수록	탐구당과 글누리 전집에서는 「농촌의 봄」에 실려 있음.
25	내 친구	-	미수록	수록	수록	탐구당과 글누리 전집에서는 「농촌의 봄」에 실려 있음.
26	버들피리	-	미수록	수록	수록	탐구당과 글누리 전집에서는 「농촌의 봄」에 실려 있음.
27	원수의 봄	-	미수록	수록	수록	탐구당과 글누리 전집에서는 「농촌의 봄」에 실려 있음. 연시조.

14 맥출판사의 『그 날이 오면』에 나오는 『심훈 시가집』 영인본을 토대로 정리했음을 밝힌다.

의 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심훈 시조의 전체적인 현황은 표1과 같다.

이 시조들을 다시 시기에 따라 나누면, ①1920년에 창작된 시조: 심훈의 일기에 실린 2편 ②『심훈 시가집』(1932)에 수록된 시조: 「항주유기」에 수록된 14편과 『신여성』(1933)을 통해 발표된 뒤 『심훈 시가집』의 「봄의 서곡」에 실린 4편 ③『심훈 시가집』(1932) 이후에 발표되거나 미발표된 시조: 「농촌의 봄」, 「근음삼수」, 농촌을 다룬 미발표 시조 5편 등 총 7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의 선행 연구가 가장 많이 주목한 시조는 ②『심훈 시가집』에 실린 시조 중 「항주유기」에 수록된 14편이다. 이 시조들은 주로 중국 유학 시절 심훈의 행적과 사상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심훈의 시조 중 미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시조 작품은 ‘③『심훈 시가집』 이후에 발표되거나 미발표된 시조’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IV장에서는 이 시조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훈 시조의 주제 의식과 미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또한 이 시조들은 심훈이 1930년대에 창작한 농촌소설과도 주제의식 면에서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훈 시조의 전체적 현황을 분석해보면, 심훈의 시조 창작은 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시조들은 『삼천리』, 『신여성』, 『중앙』, 《조선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훈이 습작기인 1920년대에 개인적인 기록인 일기를 쓰면서, 시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은 심훈이 그만큼 시조에 대해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꼈다는 사실을 추론케 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심훈이 어머니 해평 윤씨와 한문학적 소양을

지닌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시조와 한문학 작품을 접했음이 언급된 바 있다.¹⁵

또한 심훈이 남긴 전체 27편의 시조 가운데 연시조는 「천만리라 먼 줄 알고」, 「평호추월」, 「채련곡」, 「명사십리」, 「해당화」, 「송도원」, 「충석정」, 「농촌의 봄」, 「근음삼수」, 「원수의 봄」 등 10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에 실린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을 「농촌의 봄」에 포함되는 연시조 혹은 연작의 한 부분으로 보면, 전체 시조의 편수는 22편이 되고, 연시조와 연작은 9편이 되어 연시조와 연작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더 늘어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심훈이 시조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연시조나 연작을 쓰는 등 새로움을 추구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심훈이 이와 같은 연시조를 창작한 것은 당대의 문학적 흐름을 따른 것이다. 가람 이병기는 「時調는 革新하자」¹⁶에서 “連作을 쓰자”고 강조했는데, 그 내용의 일 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從來의 時調에 한 수가 한 편이 되게 하여 完全히 한 獨立한 생각을 表現하였다. 무론 이러케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生活相은 예전보다도 펍 複雜하여지고 새 刺戟 많이 받게 됨을 따라 또한 作者의 成功도 가지가지로 많을 것이다. 그것을 겨우 한 首만으로 表現한다면 아무리 그 線을 굵게하여 하드라도 될 수 없으며 된대야 不自然하게 되고 말 것이니 자연 그 表現을 展開시킬수밖게 업다. 워낙 時調形 그것부터가 얼마라도 展開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表現方法을 展開시키자는 것은 곳 連作을 쓰자 함이다. 그러면

15 김준, 「심훈 시조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9집(2017), 171-173쪽.

16 이병기, 「時調는 革新하자」, 《동아일보》, 1932년 1월 23일-2월 4일자.

連作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한 題目을 가지고 한 首 以上으로 몇 首까지든지를 지어 한 篇으로 하는데 한 題目에 대하여 그 時間이나 位置는 같은 다르든 다만 그 感情의 統一만 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이에 다섯 首가 한 篇이 된다면 그 다섯 首가 각각 獨立한 것이면서도 서로 關聯이 있어 展開되고 統一된 것이다. 혹은 그 다섯 首가 各各 獨立性은 잃드라도 全篇으로서 統一만 되고 보면 좋을 것 아니냐고 할 이도 있겠으나 이건 또한 問題가 되는 게 時調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잘못하다는 時調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고 만다.¹⁷

심훈이 연시조와 연작을 쓴 것은 이러한 동시대의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1930년대에 출판된 가람 이병기의 『가람 시조집』(1939)과 노산 이은상의 『노산시조집』(1932)에는 연시조가 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작품이 게재된 전집의 체제를 살펴보면,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에는 「전당강상에서」, 「겨울 밤에 내리는 비」, 「기적」, 「삐죽새가 온다」가 ‘항주유기’라는 소제목 하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작품들은 전부 시조가 아니라 현대시이다. 또한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에는 『심훈 시가집』의 시조 중 「목동」과 「칠현금」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글누림 출판사의 『심훈 전집』에는 『심훈 시가집』과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에 실려 있는 「행화춘」이 누락되어 있다. 이 점은 추후 개정판이 나올 때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17 이병기, 「時調는 革新하자」, 《동아일보》, 5면, 1932년 2월 2일자. 띄어쓰기는 현대어 표기에 맞추어 수정함.

Ⅲ. 심훈의 시조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1932), 「필경사잡기」(1935)를 중심으로

심훈은 시조 장르만을 위한 별도의 비평이나 문학론을 남겨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훈은 《동아일보》에 1932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연재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시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다. 그 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그 形式이 옛것이라고 해서 구태어 버릴 必要는 업슬 줄 압니다. 作者에 諳아 取便해서 時調의 形式으로 쓰는 것이 行習이 된 사람은 時調를 쓰고 新體로 쓰고 심한 사람은 自由로히 新體詩를 지을 것이지요. 다만 그 形式에다가 새로운 魂을 注入하고 못하는 데 달릴 것이외다. 그 內容이 如前히 吟風詠月式이요 四君子 뒤풀이요 그러치 안흐면

“배불리 먹고 누어 아래우스배 문지르니
선하품 계계터림 저절로 나노매라
두어라 온돌아래목에 땡굴른들 어썩리”

이 싸위와 倣似한 內容이라면 勿論 排擊하고 아니할 與否가 업습니다. 時調는 短片의으로 우리의 實生活을 노래하고 記錄해두기에는 그 “품”이 散漫한 新詩보다는 조출하고 어엽보다고 생각합니다. 高麗磁器엔들 풍풍 솟아올르는 山澗水가 담어지지 안흘 理야 업겠지요.¹⁸

심훈은 이 글에서 시조 형식에 “새로운 魂을 注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조 문학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새로운 혼’에 달려 있다는

18 심훈, 「프로文學에 直言 1, 2, 3」, 《동아일보》, 1932년 1월 15일자, 5면. 띄어쓰기는 현대어 표기에 맞추어 수정함.

것이다. 여기에서 심훈이 말한 “새로운 혼”은 시조가 답아야 하는 새로운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훈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음풍영월식의 시조, 사군자 뒤풀이식의 시조를 배격해야 한다고 시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또한 심훈은 별 의미 없이 개인의 한가함을 노래하는 시조에 대해서도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심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조나 사군자와 더불어 인의예지(仁義禮智), 효제충신(孝悌忠信)과 같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시조에 대해서는 고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심훈은 “우리의 실생활을 노래하고 기록해두기에는 (시조가) 그 품이 산만한 신시보다는 조촐하고 어엿하다”고 주장하며, 시조 문학이 실생활을 노래하고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따라서 심훈이 말한 ‘새로운 혼’은 실생활에서 유발되는 정서와 관련이 있는 정신의 한 경지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목해 볼만한 점은 심훈의 이 같은 시조에 대한 입장이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훈이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을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점은 심훈이 카프와 결별한 이후의 시점이다. 심훈은 1922년 이적효·이호·김홍파·김두수·최승일·김영팔·송영 등과 함께 염군사에 가담했고¹⁹ 1925년에는 카프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1927년

19 심훈이 염군사에 관여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글누림 출판사의 『심훈 전집』에 실린 연보는 심훈이 1922년 9월 “이적효, 이호 김홍파, 김두수, 최승일, 김영팔, 송영 등과 함께 ‘염군사(焰郡社)’를 조직하였다(이듬해에 귀국한 심훈이 염군사의 조직단계에서부터 동참을 한 것인지 귀국 후 가입한 것인지 불분명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원식은 「심훈연구서설」에서 “심훈은 1923년 염군사에 가담한다. …… 염군사는 기관지 『염군』의 창간호와 2화가 거듭 발행금지처분을 받게 되면서 1923년 조직 확장에 들어가 이때 심훈·최승일(崔承一)·김영팔(金永八) 등이 새로이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주인은 “염군사는 1924년에 同人들이 도쿄, 고베, 간도, 천진 등으로 떠난 것을 계기로 활동이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組織內에 문학부, 극부, 음악부를 건립하여 활동을 再起하는데, 이때서야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맡은 영화 「먼동이 틀 때」가 단성사에서 개봉했을 때, 한설야가 「映畫藝術에 對한 管見」²⁰에서 혹평을 하자, 심훈은 「우리 民衆은 어서한 映畫를 要求하는가?—를 論하여 『萬年雪』君에게」²¹를 써서 한설야의 비평에 대해 반론을 펼친다. 심훈은 이 글에서 “『맑키즘』의 見地로써만 映畫를 보고 이른바 唯物史觀的 辨證法을 가지고 『키네마』를 尺度하러 함은 藝術의 本質조차 據得치 못한 固陋한 偏見”²²이라고 주장한다. 임화가 심훈의 이 글에 대해 「朝鮮映畫가 가진 反動的 小市民性的 抹殺—沈薰 等の 跳梁에 抗하여—」²³를 써서 심훈의 글에 대해 재반론을 펼쳤지만, 심훈은 임화의 비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심훈이 카프 계열의 예술가들과 거리를 두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고보 출신의 심훈이 등장한다. 따라서 심훈은 ‘염군사’의 出發點에 同行한 것이 아니라 ‘염군사’의 기본 조직이 와해되는 시점 즉, 다른 측면에서는 回生해 보려는 起點에서 同人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염군사’의 초기 멤버와 그 出發點이 달랐음이 확인된다”라고 서술하며, 심훈이 1924년에 염군사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병석은 「沈薰의 生涯 研究」에 “1922年 “焰郡社” 組織에 沈大燮이 參加하였다 함은 잘못이다. “焰郡社” 組織이 1922年 아니던가, 沈薰이 가입하지 않았던가, 組織한 뒤에 加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병석은 심훈의 귀국 시점을 1923년으로 보고 있으며, 염군사에 심훈이 가입한 것은 염군사가 조직된 1922년 9월보다 나중의 일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심훈, 「작가 연보」, 『심훈 전집』 8(글누림, 2016), 535쪽; 최원식, 「심훈연구서설」, 김학성 외, 『韓國近代 文學史의 爭點』(창작과 비평, 1990), 241쪽;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논집』 제34집(2006), 254-255쪽; 유병석, 「沈薰의 生涯 研究」, 『국어교육』 제14권(1968), 14쪽; 이상의 내용은 정은경,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7집(2018)을 참조하여 원 논문을 확인한 뒤에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 20 만년설, 「映畫藝術에 對한 管見」, 《중외일보》, 1928년 7월 1일-7월 9일자.
 21 심훈, 「우리 民衆은 어서한 映畫를 要求하는가?—를 論하여 『萬年雪』君에게」, 《중외일보》, 1928년 7월 11일-7월 27일자.
 22 심훈, 「우리 民衆은 어서한 映畫를 要求하는가?—를 論하여 『萬年雪』君에게」, 《중외일보》, 1928년 7월 13일자, 3면. 띄어쓰기는 현대어 표기에 맞추어 수정함.
 23 임화, 「朝鮮映畫가 가진 反動的 小市民性的 抹殺—沈薰 等の 跳梁에 抗하여」, 《중외일보》, 1928년 7월 28일-8월 4일자.

심훈이 《동아일보》에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을 발표한 1932년은 심훈이 이러한 논쟁 끝에 카프와 완전히 결별한 이후의 시점이다. 심훈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프로문학에 대해 “아직까지는 數만흔 프로作家中에 造詣와 表現力을 가진 卽 一家를 이루은 作家가 다섯 손가락도 꼽아지지 않는 것은 크게 遺憾입니다”²⁴라고 카프 계열 예술가들을 비판한다. 그가 이 글의 2장에 굳이 ‘時調는’이라는 소재목을 달고, 시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1920-1930년대에 문단에서 일어났던 시조부흥운동이 프로문학에 대한 반격이었다는 점을 심훈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시조부흥운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20년대 중반에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시조 계승을 염려해야 할 사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문학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시조가 필요했던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좌파에서 계급문학을 주장하는 데 맞서서 우파가 반론을 펴면서 계급을 초월한 민족문학의 정수인 시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시조 부흥을 주장했다.²⁵

특히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시조부흥운동과 관련해 심훈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32년 2월 6일자 〈문단전망〉에서 시조부흥의 찬반론을 다시 실을 때는 찬성론이 열세에 몰렸다. 김억(金億), 심훈(沈薰), 정인섭(鄭寅燮) 등은 시조를 부흥하려면 내용이나 표현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²⁶

24 심훈, 「프로文學에 直言 1, 2, 3」, 《동아일보》, 1932년 1월 15일자, 5면.

2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지식산업사, 2005), 289-291쪽.

26 조동일(2005), 위의 책, 297쪽.

즉 심훈은 비록 사상적으로는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프로 문학을 비판하고, 시조의 부흥을 주장했던 점에서는 시조부흥론을 주장하는 문인들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심훈은 문단 내에서 카프 계열의 좌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 등 특정한 정치적 분파에 속하지 않고, 양 측 모두와 일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입장을 견지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훈은 「필경사잡기」²⁷에 남구만의 시조를 인용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에 대한 관점을 밝혀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해눔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넘어 사례 긴 받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내 무슨 태평성대의 일민(逸民)이어나 삼십에 겨우 귀가 달린 청춘의 몸으로
어느 새 남구만(南九萬) 옹의 심경을 본떠 보려 함인가. 이 피폐한 농촌을
음풍영월(吟風咏月)의 대상을 삼고져 일부러 당진 구석으로 귀양살이를
온 것일까.²⁸

이 글은 시조에 대한 심훈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글에는 농촌에 대한 심훈의 생각과 당진에 귀향한 뒤,

27 심훈의 수필 중 「필경사잡기」는 『개벽』(1935년 1월)에 실린 「필경사잡기: 최근의 심경을 적어 K우(友)에게」와 《동아일보》(1936년 3월 12일-18일)에 실린 「필경사잡기」 두 편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필경사잡기」는 『개벽』에 실린 「필경사잡기: 최근의 심경을 적어 K우(友)에게」이다.

28 심훈, 「필경사잡기」, 『심훈 전집』 1(글누리, 2016), 310-311쪽.

농촌을 대상으로 심훈이 하고 싶어했던 문학에 대한 생각이 은연 중에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심훈은 남구만처럼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와 같은 시조를 창작하러 당진에 귀향한 것이 아님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농촌을 한가로운 소요의 공간이나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신에 피폐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처럼 필경사를 당진에 설계하여 짓고, 문필 활동에 몰두할 무렵의 심훈은 농촌에 대해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그에 근거하여 작품을 창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심훈은 「필경사잡기」에서 남구만 및 임포와 자신을 대비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은연 중에 드러낸다. 또한 심훈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필경사잡기」에서도 음풍영월 식의 문학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심훈의 문학관은 「필경사잡기」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농촌을 다룬 심훈의 시조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작품들은 「근음삼수», 「원수의 봄」 등이다.

IV. 심훈 시조의 변모 과정 및 주제 의식

심훈의 시조 중 일기에 삽입된 시조는 총 3수이다. 1920년 1월 5일자의 일기에 시조 1수가, 1920년 3월 29일자의 일기에 2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1월 5일자의 일기에 삽입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장 구분 없이 작성되었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시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작품을 시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섬세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1920년 3월 29일자 일기에 포함된 시조는 두 수인데, 이 시조를 연시조로 볼 것인지, 별도의 시조 작품 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3월 29일자의 일기에 포함된 두 수의 시조는 이 두 시조의 주제 의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품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작품으로 다루기로 한다. 심훈의 1920년 3월 29일자의 일기에 실린 시조는 다음과 같다.

천만리라 먼 줄 알고 터 불러도 아셨더니,
엷은 종이 한 장 밖에 정든 벗이 숨단 말가
두어라 이 천지에 우리 양인 뿐인가 하노라.

이향(異鄉)에 병든 벗을 내 어이 떼고 갈라
이제 이제 허는 중에 봄날은 그물은 제
어렴풋한 피리소리 객창(客窓)에 들리는고야.²⁹

두 수로 이루어진 이 시조의 주제 의식은 친구에 대한 우정이고, 주된 정조는 쓸쓸함이다. 그는 이 시조가 삽입된 1920년 3월 29일자의 일기에서 “조반 뒤에 곧 집으로 나갈 양으로 가는 길에 최철 군을 찾았다. 위인이 재조가 있고 총명하고 친절한 여성적 남자다. 나는 그의 부드러운 성격에 끌렸음이다. 그러나 그는 며칠 동안 감기로 누웠다. 나는 그를 위안해줄 겸 방한옥(方漢郁) 군과 종일 서독(書讀)을 하다가 갈 길에 시조 둘을 주었다”³⁰ 라고 이 시조의 창작 배경을 밝혀두었다. 심훈 연보에 따르면, 이 시조가 쓰인 1920년에 심훈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 흑석동 집과 가회동에 있는 심우섭의 집에 기거하며 문학을 연마하고 있었다.³¹ 이 일기에 등장하는 최철과 방한옥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심훈이 지기

29 심훈, 『심훈 전집』 8(글누림, 2016), 463-464쪽.

30 심훈(2016), 위의 책, 463쪽.

31 심훈(2016), 위의 책, 534쪽 참조.

인 최철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시조를 지어 방한욱에게 주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심훈, 최철, 방한욱은 서로 아는 사이였던 듯하다. 또 이 시조로 보건대, 심훈은 아픈 벗을 생각하며 시조를 지어줄 정도로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던 듯하다.

이 시조는 심훈의 일기에 삽입된 시조이고, 심훈이 생전에 『심훈 시가집』을 엮을 때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시조인 만큼, 심훈이 일반 독자에게 공개할 생각으로 지은 시조는 아닌 듯하다. 그보다 이 시조는 심훈이 친구인 방한욱과 최철에게만 보일 목적으로 쓴 심훈의 사적인 기록에 가깝다. 그러나 심훈이 습작 시절에 지은 이 시조를 통해 시조 문학에 대한 심훈의 관심도와 친밀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심훈 연보에 따르면, 심훈의 “어머니 윤씨는 기억력이 탁월했으며 글재주가 있었고 친척모임에는 그의 시조 읊기가 반드시 들어갔을 정도였다”³²고 한다. 이처럼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 시조를 접하고 자랐던 심훈은 청년이 되어서도 시조를 지어 지인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시조 장르에 대해 친숙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한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1930년대에 이르면, 항주 유학 시절의 경험을 시조로 표현해 『삼천리』라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항주유기」에 실린 열 네 편의 시조는 항주의 경개절승을 유람하고 난 뒤의 감회나 소회를 다룬 기행시조가 대부분이다. 이 시조들은 ①항주의 경개절승에 대한 감흥과 소회를 밝힌 시조: 「삼담인월」, 「소제춘효」, 「남병만중」 ②관광지를 돌아본 뒤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민족의식을 표현한 시조: 「평호추월」, 「고려사」 ③자연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조: 「채련곡」, 「목동」 ④유학 시절의 경험과 감정을 다룬 시조: 「누외루」, 「항성의 밤」, 「전당강반에서」, 「칠현금」 ⑤중국의 고사 및 역사와 관련이 있는

32 심훈(2016), 위의 책, 533쪽.

시조: 「행화춘」, 「방학정」, 「악왕분」으로 분류된다.

(1)

중천(中天)의 달빛은 호심(湖心)으로 쏟아지고
향수는 이슬 내리듯 마음속을 적시네
선잠 깬 어린 물새는 뉘 설움에 우느냐

20리 주위나 되는 넓은 호수 한복판에 떠있는 수간모옥(數間茅屋)이 호심정(湖心亭)이다.

(2)

손바닥 부를도록 뱃전을 두드리며
‘동해물과 백두산’을 떼를 지어 부르다가
동무를 얼싸안고서 느껴느껴 울었네

(3)

나 어려 귀 너머로 들었던 적벽부(赤壁賦)를
운파만리(雲波萬里) 예 와서 당음(唐音) 읽듯 외단 말가
우화이귀향(羽化而歸鄉) 하여서 내 어버이 뵈옵과저

—「평호추월(平湖秋月)」 전문³³

심훈은 「평호추월」의 첫째 수에서 서호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하면서 ‘물새’에게 자신의 서러운 감정을 이입했다. 여기에서 ‘물새’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두 번째 수에서는 뱃놀이를

33 심훈, 『심훈 전집』 1(글누리, 2016), 157쪽.

하며, 애국가의 한 구절인 “동해물과 백두산”을 외치며 동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세 번째 수에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평호추월」은 서호의 풍경에 대한 묘사에서 출발하여, 감정의 분출과 소망의 제시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수에서는 서호의 정경이 묘사되는데, 이 경치를 바라보는 화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서호를 보니, 잠에서 깬 물새가 우는 것도 서러워 보이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는 화자가 배를 타고 서호를 유람하다가 손바닥이 부르르도록 뱃전을 두드리며,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제시된다. 첫째 수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면, 둘째 수에서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강한 정념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셋째 수에서 화자는 어려서 귀 너머로 들었던 소동파의 「적벽부」를 떠올리며, “우화이귀향”하여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말한다. 이 시조에는 화자가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 고향, 조국, 아버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유학 시절 심훈이가 겪었던 사상이나 감정, 정서를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기행시조로 분류해볼 수 있는 이 시조에는 여정과 감상이 드러나 있다. 한편 심훈이 이 시조의 셋째 수 종장에 소동파의 한문학 작품인 「적벽부」의 한 구절(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을 변형하여 인용한 것에서는 심훈의 한문학적 소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운연(雲煙)이 잦아진 골에 독경(讀經) 소리 그윽코나
에 와서 고려태자(高麗太子) 무슨 도를 닦았던고
그래도 내 집인 양하여 두 번 세 번 찾았었네

「고려사」에서는 고려 시대의 태자이자 승려였던 대각국사 의천이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온 절인 항주의 고려사를 방문한 심훈의 모습이 나타난다. 의천은 927년에 창건된 항주의 혜인선사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고려로 귀국한 뒤, 이 절에 『금장경』을 보내고 절의 중창을 도왔다고 한다. 그때부터 혜인선사는 중국에서 ‘고려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심훈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고국과 연관이 있는 이 절이 “내 집인 양”인 느껴져 여러 번 찾았다고 종장에서 언급한다. 「고려사」에는 타향에서 고국과 연관된 장소를 반복해 찾으며, 객수를 달랬던 청년 시절 심훈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두 시조를 보면, 항주 유학 시절 심훈은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한편,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심화했음을 알 수 있다. 심훈은 「항주유기」에 “항주(杭州)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 더구나 그 때에 유배나 당한 듯이, 호반(湖畔)에 소요(逍遙)하시던 석오(石吾), 성재(省齋) 두 분 선생님과, 고생을 같이하며 허심탄회로 교류하던 엄일파(嚴一派), 염온동(廉溫東), 정진국(鄭鎭國) 등 제우(諸友)가 몹시 그림다”³⁵라고 적어두었다. 이러한 독립 운동가들 및 망명객들과의 교류는 심훈의 내적 세계관에 일정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더구나 심훈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 북경과 상해를 거쳐 항주에 체류하고 있던 터였다. 북경에서도, 상해에서도 자신의 나아갈 길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했던 심훈에게 항주는 치유의 장소였을 것이고, 심훈은 항주의 여러 아름다운 관광지를 돌아보며, 자기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항주에 체류하는

34 심훈(2016), 위의 책, 171쪽.

35 심훈, 「항주유기」, 『심훈 전집』 1(글누림, 2016), 156쪽.

동안 심훈은 서호 10경 등 항주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돌아가서 활동해야 할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키워나갔다. 「항주유기」에 실린 심훈의 시조는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시조 문학의 한 부분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중국 유학 시절 심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자기의식을 확립해갔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심훈에게 항주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 “상해가 공적 세계라면 항주는 감각과 정서에 기초한 사(私)의 발원처”³⁶였으며, “북경과 상해가 잠행의 공간인 것에 반해 항주는 만유의 장소”³⁷였다는 견해와 심훈이 항주에서 보낸 시간은 “자기성찰의 과정”³⁸이었으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역사 인식과 문학의 방향은 더욱 선명하게 내면화되는 계기”³⁹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심훈이 남긴 시조를 통해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심훈은 항주에서 개인의 내면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내며, 유람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공적인 역할과 임무를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훈은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한가로이 이곳저곳을 유람하며,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민족이나 역사와 관련해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확립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훈의 시조 세계는 1920년대에는 ‘일기’라는 개인적 양식을 통해 사적인 우정의 세계를 다루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면, 항주의 경개절승을 관광하고 난 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생각과 감회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심훈의 시조가 실린 매체가 일기에서 『삼천리』라는 공적인 매체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조가 담고 있는 사상 역시도 개인적

36 한기형, 「'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 중국에서의 심훈」, 『민족문화사연구』 제35권(2007), 453쪽.

37 한기형(2007), 위의 논문, 453쪽.

38 하상일, 「심훈의 중국 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제51집(2015), 101쪽.

39 하상일(2015), 위의 논문, 101쪽.

우정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심훈의 세계관은 식민지 시대의 농촌이 처한 삶의 현실을 다룬 시조들에서 구체성과 진실성을 획득하여, 식민지 시대 시조 문학의 한 영역을 개척하기에 이른다.

농촌을 다룬 심훈의 시조들은 1933년 4월 『중앙』에 발표된 「농촌의 봄」, 1934년 11월 2일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된 「근음삼수」, 그리고 미발표된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 등 7편이다. 이 작품들에는 연시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시조의 한 수를 개별적인 작품으로 보면, 작품의 수는 더 늘어난다.

농촌을 다룬 이 시조들을 발표하던 무렵 심훈은 고향인 당진에 기거하고 있었다. 심훈은 1930-1932년 동안 일본의 검열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작품 활동이 중단되거나, 시가집을 내려고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1930년에는 『동방의 애인』이 검열로 인해 2달 만에 연재가 중단되었고,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에는 『불사조』를 《조선일보》에 연재하지만, 이 작품 역시 검열에 걸려 연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심훈 시가집』을 발간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이 책의 출판 역시 무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 심훈이 당진에서 쓴 소설이 『영원의 미소』이다. 이 작품은 계속과 수영이 지주계급인 조경호의 횡포에 맞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내용으로, 농촌에 대한 심훈의 관심이 처음으로 표현된 소설이다. 또 심훈은 당진에서 실존인물인 최용신과 장조카 심재영을 모델로 하여, 그의 대표작인 『상록수』를 집필하기도 했다. 심훈의 농촌을 다룬 시조들은 1933-1934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영원의 미소』와 『상록수』 사이에 위치한다.

심훈은 이 시조들에서 1932년 《동아일보》에 게재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분명하게 표명했던 시조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실천한다. 즉 음풍영월 식의 시조, 사군자 뒤풀이에 지나지 않는 시조를 지양하고, 실생활을 노래하고 다루는 시조를 창작한 것이다. 아래에 제시하는 작품들은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아침—

서리 찬 새벽부터 뉘 집에서 씨아를 트나
우러러 보니 기러기 떼 머리 위에 한 줄기라
이 땅의 무엇이 그리워 밤새 가며 왔는고

—낮—

벗단 세는 소리 어이 그리 구슬프노
싯누린 금 벼이삭 까마귀라 다 쪼는데
오늘도 이팝 한 그릇 못 얻어 자셨는가

—밤—

창밖에 게 누구요, 부스럭 부스럭
아낙네 이숙토록 콩 거두는 소릴세
달밤이 원수로구려 단잠 언제 자려오

—「근음삼수」 전문⁴⁰

「근음삼수」에는 농촌의 아침과 낮, 밤의 풍경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

40 심훈, 「근음삼수」, 『심훈 전집』 1(글누림, 2016), 228쪽.

제시되고 있다. 이 풍경은 「항주유기」의 「목동」에 등장하는 한가로운 농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심훈이 항주에서 접한 중국의 농촌 풍경은 “수우(水牛)를 비껴 타고 초적(草笛) 부는”⁴¹ 한가로운 소년이 죽순 캐던 어린 누이의 환대와 마중을 받던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심훈이 조선에 귀국한 뒤에 마주하게 된 농촌의 풍경은 그와 같이 한가하고 여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시조에는 구체적인 노동의 장면과 함께 농민의 서러움과 애환이 아울러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수확한 목화송이에서 씨앗을 빼내는 작업인 씨아를 트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고, 「낮」에는 벧단을 세는 농부의 구슬픈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밤」에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콩을 거두는 아낙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즉 조선의 농촌은 항주의 농촌과 같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아침, 낮, 밤 구분 없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는 심훈이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주장한 “새로운 혼”을 담은 시조를 써야 한다는 입장, “실생활을 노래하고 기록”하기에는 시조가 신시보다 유리하다는 입장 등 그의 시조관이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에서 실천된 경우라 할 만하다.

한편 첫째 수인 「아침」에서 이 시조의 화자는 기러기를 향해 “이 땅의 무엇이 그리워 밤새 가며 왔는고”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심훈이 그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구절은 화자가 조선의 농촌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심훈이 인식한 1930년대 조선의 농촌은 그리워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절망의 땅이었던 것이다. 또한 「낮」에서는 종장에서 시조의 화자가 농부를 향해 “오늘도 이팝 한 그릇 못 얻어 자셨는가”라고 묻고 있고, 「밤」에서는 이숙한 밤이 되도록 고된 노동을

41 심훈, 『심훈 전집』 1(글누림, 2016), 176쪽.

하고 있는 여인을 보며 화자가 “달밤이 원수로구려 잠은 언제 자려오”라고 묻고 있다. 심훈의 「근음삼수」는 이처럼 농민들의 빈곤과 고된 노동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대구를 이루는 종장의 질문들을 통해 1930년대 조선의 농촌이 처한 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누더기 단벌옷에 비를 흠뻑 맞으면서
늙은이 전대 차고 집집마다 동냥하네
기나 긴 원수의 봄을 무얼 먹고 산단 말요

당신이 거지라면 내 마음 털 상할걸
엇그제 떠나갔던 박침지가 저 풀이라
밥 한 술 얻어먹는 죄에 얼굴 화끈 다는구료

—「원수의 봄」 전문⁴²

「원수의 봄」에서 심훈은 좀 더 직접적인 언어로 식민지 농촌이 처한 현실을 묘사한다. 두 수로 이루어진 이 시조는 첫 번째 수에서 한 명의 늙은 노인이 동냥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에서는 그 노인의 빈곤이 식민지 조선의 농민이 처한 일반적인 현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시조를 살펴보면, 늙은 노인이 누더기 단벌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전대를 차고 집집마다 동냥을 다닐 정도로, 식민지 농촌의 현실은 씁쓸하다. 그런 농촌에 찾아오는 봄은 희망과 소생의 봄이 아니라, ‘원수의 봄’일 뿐이라고 이 시조의 작자인 심훈은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 이 시조의 화자는 첫 번째 수에 묘사된 노인이 특수한

42 심훈, 「농촌의 봄」, 『심훈 전집』 1(글누리, 2016), 223쪽.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중장에 표현된 바처럼, 옛그제 떠나갔던 박 침지의 모습이 그 노인의 모습에 겹쳐진다면, 이는 식민지의 농촌에 사는 여느 필부의 모습이 그 노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실상 식민지 시대에 농촌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밥을 동냥하여 먹고 살거나, 스스로 논을 버리고 떠나 유민이 되기도 했다. 둘째 수의 종장에서 그러한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은 타인의 밥을 동냥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가난은 이처럼 평범한 농민들에게 수치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심훈은 이를 예리하게 묘사하여 그의 시조에 가감 없이 기록했다. 이처럼 심훈은 1930년대의 농촌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그의 시조 작품에서 매우 직적적인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농촌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시조 외에 그의 소설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훈은 1933년 7월 10일부터 1934년 1월 10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영원의 미소』와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게재한 『상록수』에서도 농촌의 현실을 다루었다. 『영원의 미소』에 제시된 농촌의 현실은 그의 시조에 나타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사 장르인 소설에서 심훈은 공동체 정신과 동지애로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계몽 의식을 드러낸다. 이 점은 농촌을 다룬 심훈의 시조와 그의 소설이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훈은 시조에서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에 수반하는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었다면, 소설에서는 그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으며, 시조와는 다르게 희망적으로 결말을 마무리하고 있다.

V. 맺음말

심훈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시조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습작 시절인 1920년에 쓴 일기에 시조를 적어놓았고, 1930년대 이후에는 『삼천리』, 『신여성』, 『중앙』, 『조선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시조를 발표했다.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심훈은 1932년 『동아일보』에 게재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시조에 대한 그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기도 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심훈의 시조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론의 II장에서는 심훈이 지금까지 남긴 모든 시조의 현황과 게재 지면을 확인하였다. 발표 지면과 매체를 기준으로 심훈의 시조를 분류해보면, ①1920년의 일기에 포함된 시조: 「천국이 밝다 한들」, 「천만리라 먼 줄 알고」 등 2편 ②『심훈 시가집』의 「항주유기」에 실린 시조: 「평호추월」, 「삼담인월」, 「채련곡」, 「소제춘효」, 「남병만종」, 「누외루」, 「방학정」, 「행화촌」, 「악왕분」, 「고려사」, 「항성의 밤」, 「전당강반에서」, 「목동」, 「칠현금」 등 14편 ③『신여성』에 실린 시조: 「명사십리」, 「해당화」, 「송도원」, 「총석정」 등 4편 ④『중앙』에 실린 시조: 「농촌의 봄」(「아침」, 「창을 여니」, 「마당에서」, 「나물 캐는 처녀」, 「달밤」, 「벗에게」 등으로 구성된 연시조) 등 1편 ⑤『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시조: 「근음삼수」(「아침」, 「낮」, 「밤」 등으로 구성된 연시조) 등 1편 ⑥농촌을 다룬 미발표 시조: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 등 5편으로 전체 27편이다. 이 가운데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은 탐구당의 『심훈문학전집』과 글누림출판사의 『심훈 전집』에는 「농촌의 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연시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연시조를 개별적인 작품으로 본다면, 심훈이 남긴 시조의 작품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본론의 III장에서는 심훈이 그의 시조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과 심훈의 수필인 「필경사잡기」에 나타난 심훈의 시조관을 분석하였다. 심훈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시조 형식에 「새로운 魂을 注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서 심훈이 말한 ‘새로운 혼’은 실생활에서 유발되는 실감실정의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심훈은 「필경사잡기」에서 남구만 및 임포와 자신을 대비하였고, 자신은 음풍영월 식의 시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두었다.

마지막으로 본론의 IV장에서는 심훈의 시조 세계를 검토하였다. 1920년도에 쓴 일기에 나타난 심훈의 시조는 개인적 우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 시조는 공적으로 발표할 계획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심훈이 습작 시절에 지은 이 시조를 통해 시조 문학에 대한 심훈의 관심도와 친밀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시조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1930년대에 이르면, 항주 유학 시절의 경험을 시조로 표현해 『삼천리』라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항주유기」에 실린 열네 편의 시조는 항주의 경개절승을 유람하고 난 뒤의 감회나 소회를 다룬 기행시조가 대부분이다. 이 시조들은 ①항주의 경개절승에 대한 감흥과 소회를 밝힌 시조: 「삼담인월」, 「소제춘효」, 「남병만중」 ②관광지를 돌아본 뒤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민족의식을 표현한 시조: 「평호추월」, 「고려사」 ③자연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조: 「채련곡」, 「목동」 ④유학 시절의 경험과 감정을 다룬 시조: 「누외루」, 「항성의 밤」, 「전당강반에서」, 「칠현금」 ⑤중국의 고사 및 역사와 관련이 있는 시조: 「행화춘」, 「방학정」, 「악왕분」으로 분류된다. 「항주유기」 시조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항주 유학 시절 심훈은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한가로이

이곳저곳을 유람하며,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민족이나 역사와 관련해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확립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훈의 시조 세계는 1920년대에는 '일기'라는 개인적 양식을 통해 사적인 우정의 세계를 다루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면, 항주의 경계절승을 관광하고 난 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생각과 감회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심훈의 시조가 실린 매체가 일기에서 『삼천리』라는 공적 매체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조가 다루고 있는 사상 역시도 개인적 우정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소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된 심훈의 세계관은 농촌을 다룬 시조들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결합하여 그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주장한 '새로운 혼'을 내포하기에 이른다.

농촌을 다룬 심훈의 시조들은 1934년 4월 『중앙』에 발표된 「농촌의 봄」, 1934년 11월 2일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된 「근음삼수」, 그리고 미발표된 「보리밭」, 「소」, 「내 친구」, 「버들피리」, 「원수의 봄」 등 7편이다. 심훈은 이 시조들에서 1932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분명하게 표명했던 시조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실천한다. 즉 음풍영월 식의 시조, 사군자 뒤풀이에 지나지 않는 시조를 지양하고, 실생활을 노래하고 다루는 시조를 창작한 것이다.

이러한 농촌에 대한 심훈의 관심은 시조 외에 그의 소설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훈은 1933년 7월 10일부터 1934년 1월 10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영원의 미소』와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상록수』에서도 농촌을 다루었다. 『영원의 미소』에 제시된 농촌의 현실은 그의 시조에 나타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사 장르인 소설에서 심훈은 공동체 정신과 동지애로 비참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계몽 의식을 드러낸다. 이 점은 농촌을

다른 심훈의 시조와 소설이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훈은 시조에서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에 수반하는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그쳤다면, 소설에서는 그 현실을 극복할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으며, 희망적으로 결말을 마무리하고 있다.

심훈의 시조 작품은 그 나름의 변별되는 지점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을 다룬 시조들이 그러하다. 이 시조들은 심훈이 남긴 문학적 성취의 하나로서 검토되는 한편, 시조 문학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동아일보》, 《중외일보》.

심 훈, 『심훈문학전집』. 탐구당, 1966.

_____, 『그날이 오면: 심훈 시가집 친필 영인본』. 맥, 2013.

_____, 『심훈 전집』. 글누림, 2016.

최남선, 『百八煩惱』(영인본). 한국학연구소, 1987.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2005.

최원식 외, 『韓國 近代 文學史의 爭點』. 창작과 비평, 1990.

3. 논문

김준, 「심훈 시조 연구」. 『열상고전연구』 59집, 2017, 167-191쪽.

신용순, 「심훈 시조고(考)」. 『한국문예비평연구』 36집, 2011, 183-200쪽.

유병석, 「沈熏의 生涯 研究」. 『국어교육』 14권, 1968, 10-25쪽.

정은경, 「심훈 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7집, 2018, 227-255쪽.

주인, 「'심훈' 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서설」. 『어문논집』 34집, 2006, 249-269쪽.

하상일, 「심훈과 중국」. 『비평문학』 55호, 2015, 201-231쪽.

_____, 「심훈의 중국체류기 시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51집, 2015, 75-108쪽.

_____, 「심훈의 「항주유기」와 시조 창작의 전략」. 『비평문학』 61호, 2016, 203-226쪽.

_____, 「심훈의 생애와 시세계의 변천」. 『동북아 문화연구』 49집, 2016, 95-116쪽.

_____, 「심훈과 항주」. 『현대문학의 연구』 65권, 2018, 71-96쪽.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권, 2003, 190-222쪽.

_____, 「'백랑(白浪)'의 잠행, 혹은 만유: 중국에서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35권, 2007, 438-460쪽.

4.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www.nl.go.kr/newspape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심훈이 남긴 시조의 현황과 그의 시조관 및 시조의 변모 양상과 주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심훈이 남긴 시조는 총 27편이며, 그가 남긴 시조의 작품 수는 연시조를 개별 작품으로 본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둘째, 심훈은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음풍영월 식의 시조, 사군자 뒤떨어리에 지나지 않는 시조를 배격하고, 시조에 '새로운 혼'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혼'이란 실생활에서 비롯하는 실감실정의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필경사잡기」에서 심훈은 자신을 남구만 및 임포와 대비하며, 농촌을 음풍영월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당진에 온 것이 아님을 밝혀두었다.

셋째, 심훈의 시조 세계는 개인적 기록에서 공적인 기록으로, 애국심 등의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농촌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아가는 지향을 보인다. 1920년의 일기에 삽입된 그의 시조는 개인적 우정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1930년대에 발표된 「항주유기」 시조에 심훈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자의의식을 표현했다. 그리고 1933-1934년 무렵에 발표한 농촌을 다룬 시조에서 심훈은 그 자신이 「프로문학에 직언 1, 2, 3」에서 밝혔던 시조에 대한 입장을 실천하는 한편, 식민지 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투고일 2019. 3. 19.

심사일 2019. 4. 5.

계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심훈(Sim Hun), 시조관(Perspective on Sijo), 「항주유기」(“Hangzhouyugi”), 시조(Sijo), 농촌(Farming Village), 『심훈 시가집』(“Sim Hun's Poetry and Songs”)

Abstracts

A Study on Sim Hun's Perspective on Sijo and Change Process of Sim Hun's Sijo

Hur, Jin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Sim Hun's perspective on Sijo and change process of his Sijo.

First, there are 27 Sijo works, left by Sim Hun. And this number may increase if yeonsijo(연시조) is counted as independent works.

Secondly, in "*Straight Speech on proletarian literature*"(「프로문학에 직언 1, 2, 3」), Sim Hun opposed the sijo, which is nothing more than the sijo depicting sagunja(사군자) and beautiful scenery. And he insisted that the writer of sijo should put 'new soul' into sijo. Here, 'new soul' is interpreted as feeling and emotion emanating from a real life. Next, in "*Pil-gyeong-sa-jab-gi*"(「필경사잡기」), he wrote that he did not come to Dangjin in order to describe farming village as a place of leisure and seclusion.

Third, Sim Hun's sijo world shows a tendency to move from a personal record to a public record and from an abstract idea to a concrete, realistic world. His sijo, which is included in the diary of 1920, deals with personal friendship, while in "*Hangzhouyugi*"(「항주유기」), which was published in 1930's, Sim Hun expressed his self-consciousness as a colonial youth. And in his sijo works, which were published in 1934, Sim Hun practiced his view on the sijo which was shown in "*Straight Speech on proletarian literature*"(「프로문학에 직언 1, 2, 3」), and he described the reality and poverty of the colonial rural area.